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가져올 변화

— Part1: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기회, 그리고 도전

2025.09.30

금융2실	이재우	수석애널리스트	02-787-2293	jaewoo.lee@kisrating.com
	오유나	수석애널리스트	02-787-2314	yuna.oh@kisrating.com
	정혁진	실장	02-787-2218	hyuck-jin.chung@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그로 인한 기회와 도전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논의 및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Part 1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스테이블코인 부상의 이유,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내 도입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업권별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Part 2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신용평가 관점에서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토큰이다.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가치 변동성을 보완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1) 빠른 전송 속도 2) 투명성 3) 낮은 수수료 4) 결제 완결성 등을 결합해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전통 화폐의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다.

2) 스테이블코인 부상의 이유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와 기술 혁신을 넘어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약화되는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기축통화의 딜레마로 지적되는 만성적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수요 기반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법제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3) 혁신 vs. 안정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핀테크 등 '혁신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한 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근거로 비은행 민간기업의 발행을 허용하는 신속한 제도화를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행과 학계 등 '안정파'는 예금 이탈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불안정, 통화정책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장벽 - 요소별/발행주체별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기회와 장벽 요인들을 파악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성, 소비자 수용성, 규제 및 제도 수준, 리스크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유인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5) 업권별 대응 현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확산은 관련 산업들의 사업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들은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응 수준에 있어서는 업권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은행권은 향후 발행 주체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발행자 지위가 확실한 카드사와 핀테크 업계는 상호 협력과 공동 개발을 통해 결제 및 유통 인프라를 선점하고, 미래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Contents

I. 들어가며.....	2
II.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3
III. 스테이블코인 부상의 이유	8
IV.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두 입장 (혁신 vs. 안정)	11
V.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장벽 – 요소별/발행주체별 분석	12
VI. 업권별 대응 현황	19
VII. 마무리하며.....	23

I. 들어가며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화두에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디지털 화폐 혁명이라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고 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성공 및 실패 가능성, 각 금융기관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금융기관 신용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크게 Part1과 Part2로 나누어져 있다. Part1에서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소개 및 현황 설명에 집중하고, Part2에서는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금융기관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다룰 것이다.

Part1

- I. 들어가며
- II.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 III. 스테이블코인 부상의 이유
- IV.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반된 입장 (혁신 vs. 안정)
- V.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장벽 – 요소별/ 발행주체별 분석
- VI. 업권별 대응 현황
- VII. 마무리하며

Part2

- I.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영향 분석 – 시장 규모 예측
 - II.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은행/카드) 신용도 영향 분석
 - III. 결론 및 제언
- Appendix.1 시장 규모 예측 Bottom-up 모델 세부분석
Appendix.2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II.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인가?

1. 스테이블코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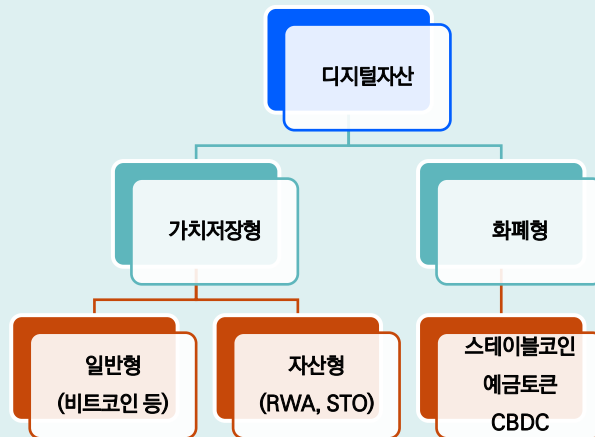
가치 변동이 안정적인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그 어원처럼 가치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디지털자산¹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징은 ①발행자는 주로 민간이며, ②가치 안정을 위해 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페깅 메커니즘이 있고, ③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원장 상에 기록되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바탕으로 교환/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강점이다. 디지털자산의 딜레마는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체로서의 역할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었다. 초기 디지털자산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제공하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지급 및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페깅)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전통 화폐의 안정성을 결합한 디지털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복합적인 특성상 디지털 금융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마치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 디지털자산의 종류〉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 기술 등에 의거해 발행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크게는 가치 저장형과 화폐형(가치 이전형)의 2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또한, 가치저장형은 다시 실물자산(금, 부동산, 미술품, 주식, 회사채 등)과 무형자산(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을 토큰화한 자산형 디지털자산과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일반형(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등을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자산으로 통칭)은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저장되어,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디지털자산 특징 비교

구분	일반형	자산형	화폐형
핵심 정의 및 특징	특정 자산과 연동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탈중앙화된 자산	부동산, 주식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증권	법정화폐 등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디지털 화폐
주요 목적	가치 저장/이전, 디지털 생태계 활용	자산의 디지털 유통화 통한 투자/소유	안정적인 지급결제 및 송금
발행 주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중앙 기관 없음)	자산 소유자	중앙은행(CBDC) 민간 금융기관/기업
장점	탈중앙성, 투명성	비유동자산 투자 접근성 확대	가격 안정성
단점	가격변동성	가격변동성, 낮은 유동성	발행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그 가치를 보증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존 은행 시스템 내에서 규제받는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은행 규제 및 예금자 보호 적용), 그리고 비은행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발행사의 신용 및 준비자산 담보가치에 의존)이라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각 디지털화폐는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결제시스템의 한계점(외화 송금/결제의 비효율성, 365일 24시간 결제 불가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발행주체의 성격, 가치 보증 방식 등에 따라,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도 어떤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미국 중심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으나,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은행 주도로 예금토큰을 발행하거나, 중앙은행 CBDC(도매용)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소매용)이 역할을 분담하는 2중 구조를 제안하기도 한다.

주요 디지털화폐 특징 비교

구분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핵심 특징	국가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상업은행 예금의 디지털화	법정화폐 등 안정적 자산에 가치 연동된 민간 발행 디지털 토큰
발행 주체	국가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민간 비은행 기업 (예: 서클, 테더) 또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법적 성격 및 보유자 청구권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부채 및 청구권. 가장 안전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	발행 상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부채 및 청구권. 전통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	민간 발행사의 준비금 자산에 대한 상황 청구권. 거래상대방 리스크 존재
담보 및 가치 안정성	국가의 신용에 의해 뒷받침됨. 가치는 국가 법정화폐와 동일	부분지급준비금제 하의 상업은행 자산으로 담보. 안정성은 은행 규제 및 예금보험에 의존	법정화폐 또는 고품질 유동자산 준비금으로 1:1 담보. 안정성은 준비금의 질과 투명성에 의존
주요 사용 사례	소매 결제, 금융 포용,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공적 대안	은행 간 결제, 기업 자금 관리, 토큰화된 증권의 증권대금동시결제	암호화폐 거래 결제, 국경 간 지급/송금, DeFi(탈중앙금융) 접근, 신흥 시장의 변동성 헤지

담보방식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4가지 종류

2.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종류는 담보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 준비자산형 스테이블코인 (Reserve-backed Stablecoin): 담보물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 법정화폐 담보형: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현금, 예금, 단기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한다.
 - 가상자산 담보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다.
 - 실물자산 담보형: 금, 은과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한다.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Algorithmic Stablecoin): 특정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치 안정성이 취약하여 규제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2년 대폭락 사태를 겪은 테라(US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국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주요 논의는 법정화폐 담보형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가치안정성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보자산에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는 법정화폐 담보형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특징

구분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실물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
안정성 유지 메커니즘	1:1 법정화폐 및 안전자산 예치	가상자산 초과 담보 및 자동 청산	실물자산 담보	알고리즘 기반 공급량 조절
주요 담보 자산	현금, 예금, 단기 국채, MMF 등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초과담보	금, 부동산 등	없음 (무담보)
핵심 장점	직관적 구조, 높은 안정성	탈중앙성, 온체인 투명성	실물자산 가치 연동, 인플레이션 헤지	높은 자본 효율성, 확장성
핵심 취약점	발행사 신용 및 운영 리스크, 중앙화	담보자산 가격 급락 시 연쇄 붕괴	보관비용 및 유동성 문제	신뢰 상실 시 '코인런'에 극도로 취약
규제 당국 시각	엄격한 규제 하에 허용 검토	높은 위험성으로 규제 강화	증권성 판단, 장기적으로 긍정적	사실상 금지 또는 매우 부정적
스테이블코인 트릴레마	탈중앙성 X 안정성 O 자본효율성 O	탈중앙성 O 안정성 △ 자본효율성 X	탈중앙성 X 안정성 △ 자본효율성 O	탈중앙성 O 안정성 X 자본효율성 O
대표 사례	USDT(테더), USDC(서클)	DAI	PAX Gold	테라/루나

자료: 삼정KPMG, 당사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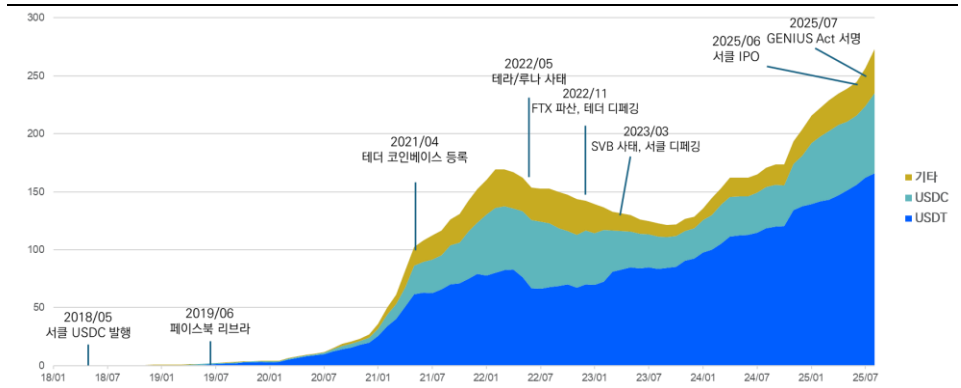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속적 성장 예상

3.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 8월 말 기준 약 2,7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성장해 왔으나 이후 정체기를 겪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년 3월 SVB(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한 디페깅 사태 및 디지털 자산 시장 침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위축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시장의 회복과 각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입 기대감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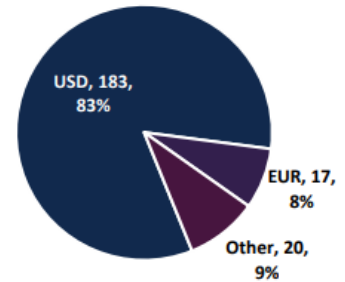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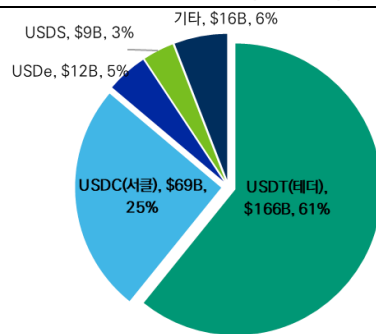


자료: rwa.xyz, Goldman Sachs, 당사 재가공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83% 이상이 USD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와 USDC가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적 경쟁 시장이다. 선두주자인 테더의 USDT가 2025년 8월 기준 약 1660억 달러가 발행되어 있어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후발주자이자 2위업체인 서클의 USDC가 약 690억 달러가 발행되어 있으며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분포(2025.08)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현황(단위: 십억 달러)



주)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현황은 2025년 4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기준

자료: rwa.xyz, 미국 재무부, 당사 재가공

4. 스테이블코인 특징 및 주요 기능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주요 기능: 가치안정성
탈중앙화 및 투명성과 불변성
효율성 및 결제완결성
프로그래밍 가능성
금융포용성 및 접근성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로서의 디지털적 효율성과 화폐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주요 특징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가치안정성

(법정화폐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토큰 가치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코인의 가치가 화폐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디지털자산의 거래쌍으로써 해외 거래소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USDT나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자국 통화 가치 절하 압력이 큰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 탈중앙화, 투명성과 불변성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어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에 기록되며, 이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과 불변성이 보장되고 있다. 거래 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 거래가 검증 및 보관되므로 투명성과 불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다만, 그 탈중앙화성으로 인해 분쟁 중재자의 부재,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에 대한 약점,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 등의 약점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불변성으로 인해 한번 발생한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에, 송금/결제의 취소 불가 등의 문제도 있다.

(3) 효율성 및 결제 완결성

거래시 스테이블코인의 소유권 이전이 분산원장상에서 즉시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 및 청산 기관 경유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기존의 결제나 송금 시스템은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결제 및 청산에 수일의 거래일이 소요되고,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거래 및 결제가 거의 동시에 완결되고, 수수료 등도 기존 금융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4)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le money)

블록체인 플랫폼(이더리움 네트워크 등)상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²을 활용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금융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자동화된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참여자 및 거래단계를 단축시켜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시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발행하면 유통 추적이 용이해지고 부정수급 방지도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조건 설정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머니 특성을 활용해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자동 소멸 시한을 설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다.

(5) 금융포용성 및 접근성

은행 및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금융 제재로 국제 결제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글로벌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 등에 활용되는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5.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초기단계의 미흡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규모 및 사용처

스테이블코인의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 및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생활에서의 사용은 많지 않다.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26조 달러 규모를 넘은 것으로 추산되나, 그 거래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가상자산 트레이딩 및 차익거래 등)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제 목적 등으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규모는 전체의 6%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이 아직 초기 단계로 실생활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등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활용(2024)

구분	거래 규모(\$ Trillion)	거래 비중	비고
가상자산 거래용	23.0	88%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쌍 및 차익거래 목적
온/오프 램핑	1.0	4%	법정화폐로/부터의 교환
토근화 RWA 정산	0.8	3%	토큰화된 MMF 등의 거래
결제 - P2P	0.5	2%	신용국 등에서의 거래 증가
결제 - B2C/C2B	0.4	2%	Shopify 등 상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결제 - B2B	0.4	2%	핀테크 등의 환 송금/결제
합계	26.1		

주) 온/오프 램핑(On/Off Ramping) : 법정화폐 →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을 온램핑(on ramping), (스테이블)코인 → 법정화폐로의 전환을 오프램핑(off ramping)이라고 함

자료: BCG, 당사 재가공

² 계약 내용을 코드로 작성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술.

III. 스테이블코인 부상의 이유

1.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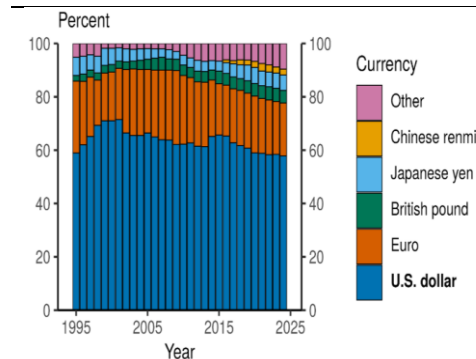
달러패권의 확보 및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장려책

(1) 달러 패권 및 달러라이제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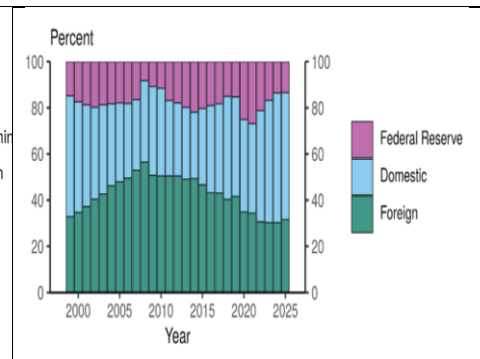
달러화의 약세 및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수요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달러는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이후 세계 제일의 기축 통화로 기능해 왔다.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수용됨에 따라 막대한 시너지(화폐발행에 따른 주조이익)를 누려 왔다. 다만,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달러 패권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달러 외환 보유고 및 미국 외 국가의 미국채 보유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축통화의 딜레마(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달러가 전세계에서 많이 쓰일수록, 미국의 재정적자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해내 달러 패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거래통화나 가치저장 수단으로써 활용이 늘어날수록, 궁극적으로 달러의 사용가치도 높아진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그 준비자산인 미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요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달러의 사용가치가 높아져 기축통화의 지위가 유지되면서도, 미국채 수요 확대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축통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별 외환 보유고 추이



미국 국채 보유 주체별 비중



자료: FED

(2) 디지털자산 금융 생태계 주도권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주도권 확보

인프라 선점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나 유럽 등이 규제에 의해 관련 생태계 성장이 부진했던 가운데,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나라도 잇따라 참여하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스테이블코인은 수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장이 자극을 받아 확대되며, 다시 금융시장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구분	주요 정책 및 공약	비고
통화	GENIUS Act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통화	CBDC 금지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부의 과도한 통제 방지
국가 전략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인플레이션 헤지, 디지털자산 제도적 정당성 확보
산업 지원	은행 회계 지침 개정 (SAB 122)	고객 가상자산 부채로 기록 불필요 은행의 수탁서비스 가능 등 참여 활성화
퇴직연금	401(k) 디지털자산 투자 가능	퇴직연금 투자자산 유입
세금	세금 규정 명확화	과세 방침 구체화, 대형 디지털자산 법인 세제 혜택

(3) 미국 국채의 수요처, 재정정책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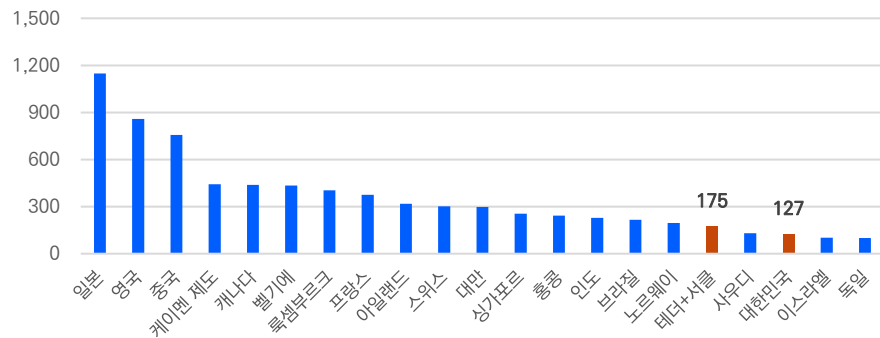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할 전망

트럼프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부담 요소이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정책 실행 및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로, 2025년 6월 말 약 119%에 이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미국 재정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단기국채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미국채 수요 증가가 미국채의 발행금리 및 차환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채 보유 상위국과 스테이블코인 업체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 (2025년 6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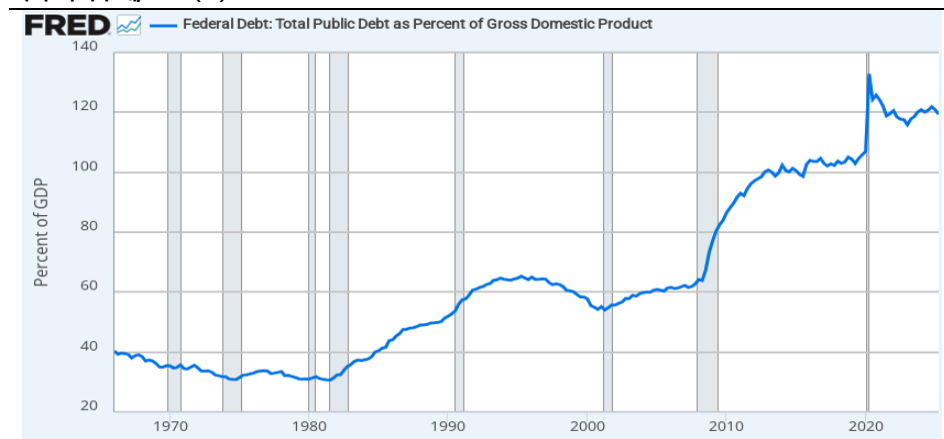
(단위:십억 달러)



주)테더+서클 국채 보유액은 준비자산 중 T-Bill과 미국채 담보 역레포 포함.

자료: 미국 재무부

미국 국가부채/GDP(%)



자료: FRED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각국의 규제 동향

각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금융안정 지향하나
각론에서 차이

최근 몇 년 새 각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초기의 규제 일변도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코인 등의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국내의 입법 현황 등을 비교하여, 각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각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은 금융 안정을 위한 인식은 같이 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원칙 기반과 재량적 허용을 통해 산업 발전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다면, 유럽과 일본은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안정안과 혁신안³이 모두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입법 방향성이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전 궤도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국 규제안 비교

구분	미국	EU	일본	한국(안정형 예시)	한국(혁신형 예시)
정의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전자화폐토큰 (EMT) & 자산준거토큰 (ART)	전자결제수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주요 철학	금융 안정, 달러 패권 유지	소비자 보호, 단일 시장 형성	금융 안정, 기존 금융 시스템 내 통제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지급 혁신, 산업 육성
허가된 발행사	부보 예금기관 자회사, 연방/주 인가 비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SCRC 만장일치 승인 필요)	신용기관, 전자화폐기관(EMT), MiCA 인가 법인(ART)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화회사로 엄격히 제한	금융위 인가 법인	금융위 등록 법인
준비자산 구성	현금, 예금, 단기 미 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	상세히 규정 (예금, 고유동성 금융상품 등)	100% 예금 또는 안전자산 신탁 (신탁형은 일부 완화)	현금, 요구불예금, 단기 국공채	구체적 제한 없음 (유연성)
재담보 금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금지	금지 (업권법에 따름)	금지 (명시적 규정)	명시적 규정 없음
감독 기구	연준, OCC, 주 감독기구 (이중 트랙)	국가역량당국(NCA), 유럽은행감독청(EBA)	금융청(FSA)	디지털자산위원회 (금융위, 한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단독)
이자/수익 지급	금지	금지	사실상 금지 (지급결제수단 규정)	금지	허용
이용자 상환권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권리 보장	법적 권리로 보장 (특히 EMT는 상시 액면가 상환)	법적 권리로 보장	3영업일 내 상환 의무	10영업일 내 상환 의무
정보 공개	월간 보고서 및 회계법인 증명	승인된 백서(White Paper) 의무화	각 업권법에 따름	월간 공시 및 의무 회계감사	발행 설명서 책임 (공시 의무 미비)
파산 시 처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우선 변제권	준비자산 분리를 통한 보호	발행 주체별 상이 (예금보험, 신탁 격리 등)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외국 발행사 정책	'유사' 체제 하 등록 필요	EU 내 법인 설립 필요 (제3국 체제 없음)	사실상 금지 (일본 내 인가 필요)	1년 유예 후 적격성 평가	등록 시 국내 유통 허용

자료: 시장자료, 당사 재가공

³ 2025년 9월 초 현재 5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중 2건(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규제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일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3건(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안의 성격을 크게 안정성과 혁신형으로 2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한다.

IV.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두 입장 (혁신 vs. 안정)

미국 및 유럽 등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계, 금융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방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를 크게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금융 혁신을 강조하는 혁신파와 신중한 도입을 강조하는 안정파로 나누어 본다.

1. 혁신파 (가상자산 업계, 핀테크 등)

혁신파 -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주장 등 신속한 제도 마련 주장

가상자산 업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파의 입장을 대표한다. 이들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다. 이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속을 막고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혁신파는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빅테크 등 비은행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일부는 은행의 발행을 반대한다).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으로만 제한할 경우, 혁신은 저해되고 경쟁이 실종되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만한 역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민첩하고 기술 중심적인 기업들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이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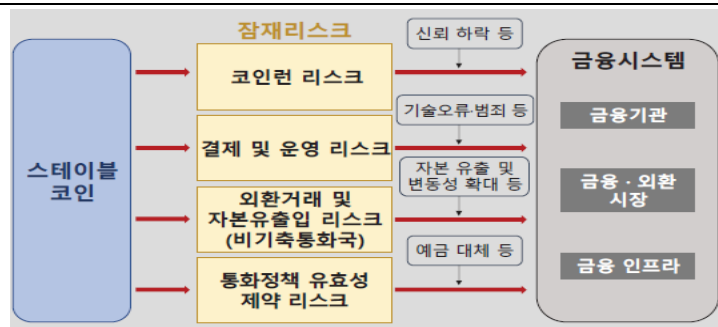
2. 안정파 (한국은행, 학계 등)

안정파 - 금융 안정성 우선, 시중은행부터 점진적 발행 허용 입장

한국은행 및 학계 등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혁신이 가져다줄 이익은 불확실한데 반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우선 가치는 거시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다.

따라서 안정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비은행권 발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우선적으로 시중은행부터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한국은행)



자료: 금융안정보고서

V.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장벽 - 요소별/발행주체별 분석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었을 때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요소별로 분석해보고, 또한 이해관계자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센티브 및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관련 주요 요소들〉

경제성	소비자 수용성	규제 및 제도	리스크
• 국경간 송금/결제 • 국내 소매 결제 • 스마트 컨트랙트 •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용	• 전환 장벽 • 사용 인센티브	• 발행주체 • 이자 지급 여부 • 준비자산 관련	• 기술 리스크 • 금융안정 리스크

1. 경제성

경제성 - 국경간 송금/결제 시간 단축 및 비용 효율성 제고

(1) 국경간 송금/결제 : 스테이블코인 vs. SWIFT

전통적인 국경간 송금 및 결제는 수십 년간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네트워크에 의존해왔다. SWIFT를 통한 국경간 송금 및 결제는 여러 중개기관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높은 문제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존 국경간 송금/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vs. 기존 국제송금 네트워크

기존 국제송금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SWIFT vs. 스테이블코인

구분	SWIFT	스테이블코인
정산 속도	3-5 영업일	수 분 (네트워크) / 1-2일 (전체 과정)
평균 비용	송금액의 3-10%	송금액의 1-3% (온/오프램프 포함 시)
운영 시간	은행 영업시간으로 제한	24/7/365 연중무휴
투명성	제한적, 불투명	블록체인상 완전 추적 가능
주요 중개자	다수의 중개은행	없음 (P2P) 또는 온/오프램프 제공자

자료: 시장자료, 당사 재가공

경제성 - 카드 대비 정산속도 빠르고
가맹점 수수료 저렴하나,
신용공여기능 결여 및
소비자보호장치 부족

(2) 국내 소매 결제 비교: 신용카드 vs. 스테이블코인

소매 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 네트워크가 시장을 지배해왔다. 카드 결제 시장구조에서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포인트/할인 등의 카드 혜택을 받고 신용카드의 신용공여 기능 등을 이용하는 대신 카드사에 연회비를 지급하고 카드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였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를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와의 접점이 넓어져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점 수수료, 카드회원으로부터는 연회비 및 할부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한편, 카드회원에게는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카드혜택으로 돌려주고, VAN사 및 PG사 등에 대해서는 결제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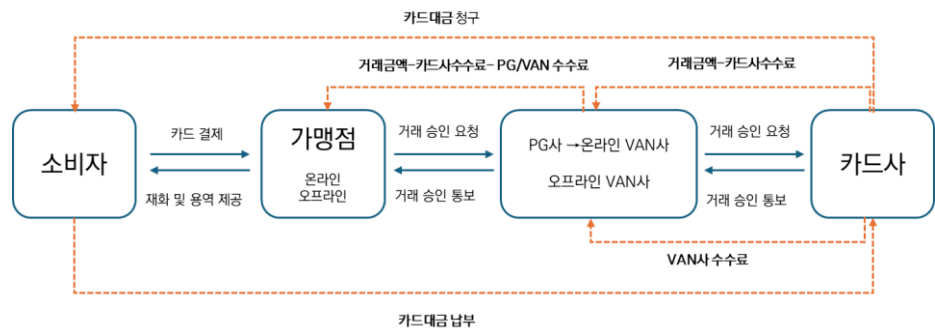
기존 카드사 결제구조에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를 지급해야 하고, 결제대금의 정산도 2일 이상 소요되며 현금흐름에도 부담을 겪고 있었다. 반면, 소비자는 포인트/할인 등의 혜택 뿐만 아니라, 환불 및 할부철회권/항변권 등 소비자 보호의 혜택도 누리고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카드 결제 시장에 도전하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빠른 정산 속도와 낮은 수수료이다. 결제 정산이 T+2일에서 즉시 정산으로 빨라지고, 카드사에 지급하던 가맹점수수료 대비 낮은 수수료만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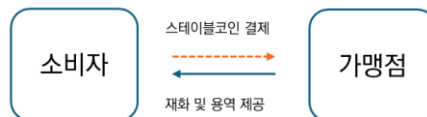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가맹점에게 비용 절감과 현금 흐름 개선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고 카드사에게도 VAN사 및 PG사 수수료 등을 절감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기존 카드 결제의 보상 체계를 넘어서는 만한 유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소매 결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 개선과 더불어, 가맹점 주도의 적극적인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카드결제와 스테이블코인 활용 결제구조 예시

카드 결제구조 예시



스테이블코인 활용 결제 예시



자료: 아이엠증권, 당사 재구성

가맹점 수수료 및 비용 구조 (기회)

- 카드 결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수락하는 대가로 거래 금액의 0.15~2.07%에 달하는 가맹점수수료 지불 → 소규모 사업체나 이익률이 낮은 업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간접 부담(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 0.15~1.45%,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0.40~2.07%, 2024년 기준)
- 스테이블코인 결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수수료 0~1%로 저렴.

정산 속도 및 자금 흐름 (기회)

- 카드 결제: 보통 2일 이상(T+2) 소요 → 가맹점 현금 흐름에 부담
- 스테이블코인 결제: 거의 결제 즉시 정산 완료 → 가맹점의 효율적 운전자본 관리

소비자 경험 및 채택 유인 (장벽)

- 카드 결제: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사기 방지 보호 등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혜택 제공
-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사가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 없으며, 전자화폐 지갑 사용 필요

신용공여 (장벽)

- 카드 결제: 신용공여 기능 → 신용카드 결제나 할부결제 등을 활용하여 현금이 없더라도 필요 시 결제 가능
- 스테이블코인 결제: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 금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 개념

환불 및 소비자 보호 (장벽)

- 카드 결제: 사기 방지, 분쟁 해결, 환불 등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구축된 카드사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음
- 스테이블코인 결제: 거래 취소절차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결여

기존 카드사 vs.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항목	카드사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결제 방식	중개기관(카드사, PG, VAN)을 통한 승인 및 정산	블록체인 기반 P2P 결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결제 속도	수초~수분 (승인 → 정산까지 수일 소요)	실시간 또는 수초 내 결제 완료
수수료 구조	가맹점 수수료(0.15~2.1%), VAN·PG 수수료	송금액의 0.1%~1% (플랫폼 및 온/오프램프 수수료 추가 발생)
신용공여기능	신용카드 기반 외상 결제, 할부, 리볼빙 가능	기본적으로 선불 구조, 신용 기능 없음
소비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기반 분쟁 해결, 부정사용 보상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법적 보호 미비 가능성
결제 인프라	단말기, VAN 망, PG 사 등 복잡한 인프라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규제 환경	금융당국 감독, 자본금 요건, 소비자 보호의무	국가별로 상이, 일부는 규제 공백 존재
데이터 활용	카드사 중심의 소비자 데이터 축적	온체인 거래 데이터 공개되나 분석 어려움

(3) 스마트 컨트랙트

경제성 – 지급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및 실물자산의 토큰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효용성은 단순히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라는 특성에서 극대화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개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거나, 기존 금융 업무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자동화된 지급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하여 복잡한 지급결제 프로세스 자동화 가능
- **공급망 관리:** 상품의 유통 및 추적 시스템에 활용. 특정 상품이 배송될 경우, 대금 자동 지급 등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요건(ex. 항공기 지연) 만족 시,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하도록 설계
- **실물자산(RWA) 토큰화:**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의 거래, 소유권 이전,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과 같은 규칙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장

경제성 -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기여

(4)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용

스테이블코인의 현재 주된 사용처는 가상자산 시장 등 디지털 생태계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사용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확장은 다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키는 피드백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교환의 매개:** 변동성 큰 가상자산 간의 거래 시 기축통화 역할
- **DeFi(탈중앙화 금융) 및 RWA(실물자산토큰) 거래의 기축통화:** DeFi 프로토콜 내 모든 대출, 예금 및 RWA 스테이블코인 기준으로 거래. DeFi나 RWA 투자 시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해 일정 조건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이자가 지급되거나 대출의 담보가 자동 청산 가능

2. 소비자 수용성

인센티브의 부족과
전환의 경직성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소비자 수용성

소비자들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머무는 이유는 전환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결제 시스템은 인프라 및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더 나은 혜택 또는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익숙함을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적 및 절차적 복잡성 해결, 개발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소비자 혜택 제공 등 새로운 결제방식 채택을 위한 강력한 유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규제 및 제도

규제와 제도의 미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의 장애요소

규제 및 제도의 불확실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이다. 관련 원칙이 정해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방향성도 정해질 수 있다.

(1) 발행주체

발행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 또는 카드사, 핀테크 업체, 컨소시엄 형태 등이 발행주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 중심일 경우 안정성에 바탕을 둔 점진적 도입, 핀테크 업체 중심일 경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자 지급 여부

이자 지급이 가능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용 화폐에서 가치 저장 목적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이자 지급이 안 되더라도, 거래소나 가맹점 등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실상 이전을 보전해줄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자나 혜택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준비자산 형태

준비자산 종류에 따라 발행 규모 및 발행사의 리스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는 미국과 달리 단기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준비자산 시장의 유동성이나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기술 및 금융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의 장애요소

4. 기술 및 금융 안정 리스크

자본 유출, 통화 정책 악화, 시스템 리스크 등의 거시경제적 위험이 관련 제도화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기술적 위험도 사용자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기술적 위험은 다음과 같으며,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는 Part 2에서 다루도록 한다.

(1)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환, 담보 관리 등의 과정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많은 금융 거래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나 버그 등의 취약점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 코드에 해커가 악용할 수 있는 기술적 취약점(예: 계좌 잔고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 존재한다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거나 막대한 자금이 탈취될 수 있다.

(2) 오라클 문제(외부 데이터 수집의 문제)

스테이블코인은 담보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건을 실행할 때, 오라클(외부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개체)을 통해 외부 정보를 가져온다. 이 오라클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해커들은 담보자산의 가치를 조작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을 혼란시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각 이해관계자별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인센티브와 위험 요소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 및 위험요소

이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다. 본 절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관한 인센티브와 위험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봤다.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 및 위험 요소

	구분	주요 기회 및 인센티브 요소	인센티브 강도	주요 위험 요소	위험 강도
사용자	소비자	- 국경 간 송금 및 결제의 효율성 - 디지털 자산 관련 결제 편의성	약	- 스테이블코인 폐강 실패 시 손실 가능성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중
	기업	- 신용카드 관련 거래비용 절감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 거래에서 결제 효율성	중	- 기존 시스템과의 비호환성 - 대규모 자금 이체 시 기술적 리스크	중
		해외 결제 부문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효율성 개선 있으나, 내수 결제 부문 등에서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약-중	소비자 보호 등이 불명확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기술위험 등 고려 시 사용에 위험 요인 존재	중
기존 금융권	은행	- 디지털 생태계에서 수탁기관 등으로 참여 - 주도적 역할 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약	- 예금 기반 약화로 인한 신용창출 기능 저하 - 외환 관련 기능 및 수익 감소 가능성	중
	카드	-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가능성	약	- 결제 기능 약화 가능성	중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	약	기존 전통 금융 기능의 약화 가능성	중
테크 및 가상자산업계	빅테크 핀테크	- 준비금 통한 운용수익 - 자사 시스템에 락인 효과 -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개발 - 글로벌 확장성 확보를 통한 성장 기회	강	- 규제 관련 불확실성 - 코인런 시 발행사도 평판 위험 및 재무적 위험 발생	약
	가상자산업계	-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디지털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대 -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 출시를 통한 고객 기반 확대	강	-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시 거래소 및 관련업체 신뢰도 하락	약
		자사 플랫폼 및 서비스의 락인 효과 강화 준비금 통한 운용수익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플랫폼 확보 통한 확장성 및 네트워크 효과 확보	강	운영 실패 시, 평판 위험 및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약
정부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통화 주권 강화 - 국가 재정정책의 재원 중 하나로 활용	중	- 코인런으로 인한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확산 - 디지털시장 확대에 따른 해킹 사고 발생 및 자본유출 등 부작용 발생	강
통화당국		-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발전 가능성 - 디지털 결제 분야 발전 및 경쟁력 확보	약	- 코인런으로 인한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확산 -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 외환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강

현재로서는 B2C 소비자 및 B2B 기업 등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국내 시장에서의 사용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보았듯 기존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및 보상체계 등을 감안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시스템 대신 이용할 유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관련 자산 시장이 커지거나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결제 편의성 및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커지면 사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은행 및 카드 등 기존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이 기회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예상은 어렵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기능 중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금융권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있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크다.

테크(핀테크 및 빅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인센티브가 강하다. 새로운 생태계의 인프라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자사 서비스에 락인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 준비자산 운용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추가되는 반면, 운영 실패로 인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디페깅 및 코인런 등이 발생 시,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관련 생태계 및 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과거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정운영계획에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명시하는 등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통화당국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해 기존의 통화 및 금융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 채널이 흔들리며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장점은 있지만, CBDC나 은행 위주의 예금토권이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인센티브〉

- **준비자산 운용 수익**

발행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며, 발행사는 준비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한다. 준비자산은 발행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미국 단기 국채(T-bills)나 환매조건부채권(Repo)과 같은 저위험, 이자 발생 자산에 투자한다. 따라서 발행사의 주요 수익구조는 단기 국채 금리(Price)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Quantity)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존 사업 락인 전략 및 네트워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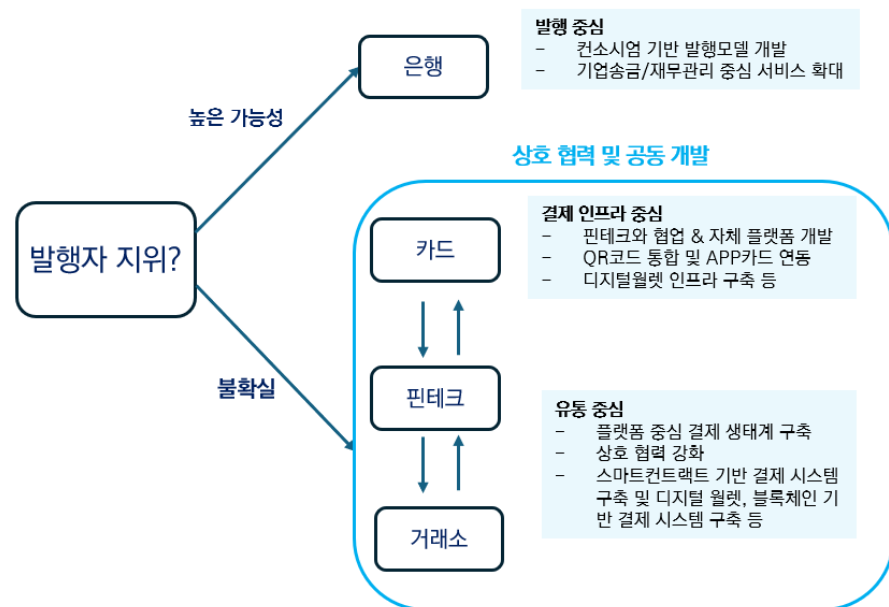
은행/카드 등 전통 금융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락인(Lock-in)시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기존 사업구조에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페이팔, 비자/마스터카드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시스템에 통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결제 경험 및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의 플랫폼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여 자사 플랫폼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개발할 수도 있다.

VI. 업권별 대응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확산은 관련 산업들의 사업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제공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기관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관은 수익성 악화 및 시장 도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아직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들은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응 수준에는 업권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발행 주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업권은 공동 조직 구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카드산업은 결제 인프라 개발, 핀테크 및 거래소는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상호 업권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업권별 대응현황



1. 은행산업

은행 - 발행자 자위 확보 가능성 높아 컨소시엄 구성 등 적극적 대응

은행업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예금 이탈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및 중개기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타 산업 대비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은행업권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약 10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및 사단법인 OBDIA(Open Blockchain & Decentralized Identifier Association, Inc.)가 신설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하여 합작법인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 해외송금 기술 검증(PoC): 상당수의 은행이 프로젝트 팩스(Project Pax)를 통해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의 송금기술을 검증(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 블록체인으로 송금 → 일본에서 원화로 환전, API⁴ 연동을 통해 양국 금융기관 간 실시간 송금 테스트)하고 있다. 주요 검증 사항은 금융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의 적용 가능성과 기존 SWIFT망 대비 속도·비용의 효율성이다.
- 내부 시스템 고도화: 스테이블코인 전담 팀 구성 및 관련 전략의 수립, 국내 기술기업과 협력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등을 통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동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강화: 수탁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자 기술업체와 협력하여 암호기술 적용 및 권한의 분산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2. 카드산업

카드 – 법적 불확실성 해소 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핀테크 업체
와의 협업 강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시된 업무 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취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카드업권은 여신금융협회와 9개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법제화에 따른 카드사의 역할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 상표권 출원(CARD KRW) 및 전자지갑 인프라 구축,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의 협업 등 기술 기반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3. 빅테크 및 핀테크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테크 – 플랫폼 중심 결제생태계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은 전 국민 사용 기반의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와 고도화된 페이먼트 인프라(간편결제 등)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중심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B2C 수요 발생 측면에서 기존 은행보다 핀테크 업체들이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에서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핀테크 업체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은 결제비용 절감 및 실시간 정산 등 플랫폼 생태계의 강화와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응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 및 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네이버-업비트, 토스-넷마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다수 출원하는 등 시장 참여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개별 업체의 영업환경 및 계열구조의 특성에 따라 대응방식이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와 TF를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준비금 수탁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플랫폼이 각각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결제망 역할을 맡는 수직계열화를 구상 중으로, 메신저 기반의 금융생태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쇼핑 플랫폼 트래픽과 온·오프라인의 결제 채널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이버페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중심의 결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등 금융계열사 3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할 수 있도록 정의된 규칙

이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행과 유통, 보관 기능이 분리되는 컨소시엄 모델 도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거래소 및 블록체인 업체들도 유통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결제 시장에 진출하고자 대응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은행업/카드/빅테크·핀테크 대응현황

항목	은행	카드	빅테크·핀테크
공동 대응	- 금융결제원 및 오픈블록체인·DID(분산 신원 인증)협회(OBDIA)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공동 대응 분과 구성 - 합작법인 설립 통한 공동 발행 추진 중	- 여신금융협회 주도 하에 9개 카드사 TF 구성 - 공동 상표권 출원 및 전자지갑 인프라 구축 논의 중	- 자체 TF를 구성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제도, 사업성 등 검토 - 업계 공동 대응을 위한 TF 구성 및 기술 표준화 논의, 협업 가능성 검토
참여 기관	-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IBK 기업,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IM뱅크 등 10개 이상 은행 참여	-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NH 농협 등 9개 카드사 참여	-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협업을 통해 Npay 기반 디지털 자산 지갑 구축 -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금융·기술 계열사 연계 - 토스: 토스뱅크, 토스페이먼츠, 토스증권 등 금융 슈퍼앱 생태계 활용
전략 방향	- 개별 발행보다 컨소시엄 중심 공동 발행 선호 - AML/KYC 등 규제 대응에서 은행의 강점 활용 - 핀테크와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검토 중	- 공동 인프라 구축 및 상표권 확보 중심 - 자체 발행보다는 협회 중심 공동 대응 선호 - 일부 카드사는 독자 브랜드 전략도 병행 중	- DID·RWA(실물자산 연계 토큰) 기술과의 연계 - 금융업 라이선스 기반 확장
기술 준비	- 상표권 출원: KBKRW, HanaKRW 등 - DID 인증, CBDC 연계 API, 내부 토큰 실험 - 국제 협력 사례(일본 팩스 프로젝트 등) 참여	- 상표권 출원: SHCw(신한), KBCSTB(KB), WONBIT(롯데) 등 - 전자지갑 인프라 검토 및 리워드 시스템 연계 가능성 - 일부 카드사는 기술 검토 단계에 있음	- 전자지갑 구축 - 기술 검토 및 사업성 분석 - 상표권 출원 다수(카카오뱅크 12건, 카카오페이 18건, 토스 10건, 토스뱅크 18건, 네이버페이 5건 등)
제도화 흐름	- 국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예정(인가제 포함) - 금융위: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추진 - 은행권: 법제화에 맞춰 발행 구조 및 역할 분담 논의 중	- 카드업법상 검열업 제한으로 법적 역할 불확실성 존재 - TF 내에서 발행주체 가능성 및 법적 근거 확보 방안 논의 중 - 디지털자산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간 충돌 우려	- 인가제/등록제에 대응 가능한 법적구조 검토 - 금융업법과의 정합성 분석 및 검열업 요건 충족여부 검토 - 일부 기업은 발행자 역할 고려하여 자본금/준비금 요건 분석 중

〈테더 vs. 서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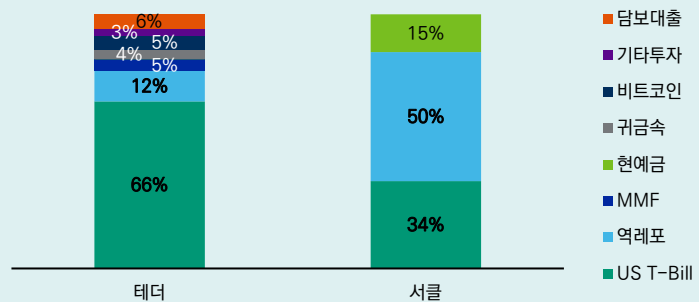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대표 회사인 테더와 서클을 비교해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재무 성과,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관리 방식, 그리고 전략적 목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재무 성과 측면에서 테더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13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준비자산 이자수익 외에도 비트코인 및 금 관련 평가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 반면, 서클의 순이익은 2024년 1.6억 달러 수준으로 테더 대비 수익성이 부진한데, 이는 주로 코인베이스 등에게 지급하는 수익 공유 비용 및 IPO 비용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클은 규제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CPN(Circle Payment Network), 아크(Arc)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화폐의 인터넷(Internet of money)'을 구축하려는 미래 전략에 집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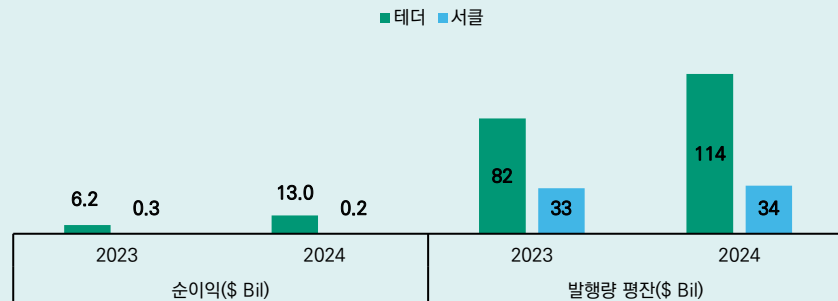
반면, 테더는 엘살바도르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밖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가고 있다. 준비자산도 서클과 달리 비트코인, 금, 대출 등 미국과 유럽의 준비자산 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준비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테더는 비트코인 채굴 및 전력 시설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자회사인 테더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AI, 뇌신경과학 등 미래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회사적 성격을 구축해가고 있다.

테더와 서클의 준비자산 현황(2024.12)



자료: 테더, 서클, 당사 재가공

테더와 서클의 발행량 평잔 및 순이익



자료: 테더, 서클, 당사 재가공

테더 vs. 서클

구분	테더	서클
주요 준비자산	미국 국채, 역레포, MMF 귀금속, 비트코인, 담보대출 등	서클 리저브 펀드(미국 국채, 역레포) 현금
주요 수익원	준비자산 이자, 투자 수익, 대출 이자	준비자산 이자
비용 구조	운영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코인베이스 등과 파트너 수익 공유 (수익의 50% 이상)
보고 기준	분기별 증명(미감사)	월별 증명 및 연간 감사 SEC보고
규제 대응	역외 기반, MiCA 등 주요 규제에 비판적, 신흥 시장에 집중	미국 기반, IPO를 통한 규제 편입, MiCA 라이선스 취득 등 적극적 협력
시장 전략	암호화폐 네이티브, 신흥 시장, 고수익 추구	기관 금융, 규제 준수, 전통 금융 시스템 통합
리스크 요인	준비금의 투명성 부족, 규제 불확실성, 자산 포트폴리오의 시장 리스크	수익 공유 모델로 인한 낮은 이익률, 이자율 하락 시 수익성 악화

VII. 마무리하며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위기’와
‘기회’에 따른 업권별 대응

스테이블코인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새로운 금융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업권을 비롯한 각 이해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환경의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구조와 규제 환경, 발행자 지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잠재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발행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을, 카드사 및 핀테크 기업 등 발행주체의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업권은 상호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유통 및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Part2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 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